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 뽑아달라”

나주시·지역 고교·대학들 채용 촉구 건의문 전달

나주시와 광주·전남지역 고교 및 대학들이 공동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와 광주·전남지역 대학 및 나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등 12개 학교 대표들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16개 이전공공기관에 보냈다.

각급 학교장이나 총장 등이 자필 서명한 공동건의문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시행일이 오는 9월23일로 임박함에 따라 지역출신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공공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적극 동참 ▲신규인력 채용시 광주·전남 지역 대학 및 고등

학교 졸업자 우선채용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계획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 등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이 청사를 착공해 지난 3월4일 우정사업정보센터 입주를 시작으로 이전대상 15개 기관 중 대부분이 2014년까지 이전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인력채용 모집공고가 실시되고 있다

나주시와 공공 기관들은 지난 7월 10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가능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침이 확정되면 졸업자의 취업문호가 대폭 확대됨은 물론 학교 및 연구·교육기관의 수준 향상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건의문 작성에는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세한대, 호남대, 초당대, 한국폴리텍5대학, 동신대, 나주공업고, 나주상업고, 호남원예고 등이 참여했다.

【나주=송영철기자 yacson@

나주 동학농민군 학살 자료 공개

당시 토벌군 참여 日 군인 진압작전 상세 설명

120여년전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가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관심을 끌고 있다.

나주공부방은 27일 “28일 ‘동학과 나주’라는 주제로 인문학 공부 시간을 갖기에 앞서 이날 강사로 초빙된 박병수 원광대 교수(동학농민혁명사)와 일본근현대사 전공)가 나주 금성관 앞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당시 토벌군으로 참여한 한 일본 군인이 쓴 종군일지(사진)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될 종군일지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이 동학농민군 학살 전담부대까지 투입해 진압작전을 펼



쳤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작성자는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제1중대 제2소대 2분대 쿠스노키 마사하루(楠正治) 상등병이다. 특히 일기 중에는 쿠스노키 상등병이 1895년 2월4일부터 2월8일 오전까지 나주에 체재하며 동학농민군이 학살되는 과정과 장소, 동학농민군이 진압 후 풍경을 다루는 장면도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장성 북하면 약수천 정비

117억 투입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명품하천으로

장성군 북하면의 상업지역을 관통하는 약수천이 문화와 생태가 살아있는 명품하천으로 새롭게 정비될 전망이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국비 70억원 등 117억원을 투입해 2.2km 구간의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오는 9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약수천은 북하면 소재지 상가지역을 거점으로 흐르는 주요하천으로 상류에 백암산이 위치하고 있어 연 4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수다.

군은 민선 5기 공약사업인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전라남도를 설득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하천재해 예방을 병행해야 하는 약수천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비를 63억원에서 117억원으로 증액하는데도 성공했다.

현재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해바라기와 미녀들. 최근 강진군 강진을 생태호수공원 주변 들뜬 자투리땅에 심어진 해바라기가 만개하자 27일 오전 주민들이 꽃 사이를 거닐고 있다. <강진군 제공>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담양중,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담양중학교가 오는 29일까지 담양중 도서관에서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교육’이라는 주제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이번 학부모진로아카데미는 진로중점학교 사업의 하나로 1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희 교장은 “자녀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진로를 찾도록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진로에 대해 자주 대화를 하며, 진로와 관련한 체험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접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전북



단풍·고인돌처럼... “함께 발전합시다”

정읍시-고창군,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협약

정읍시와 고창군은 27일 정읍시청에서 김성기 정읍시장, 이강수 고창군수, 김승범 정읍시회의장, 박래환 고창군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와 고창군의 지역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담당할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협약서는 센터 위치와 센터운영 지원을 위한 행정실무협의체 구성, 시·군비 예산 부담 내역 등과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16억5700만원을 들여 추진된다.

정읍시는 고창군과 함께 농림축산

순창군 ‘코레일 마케팅’ 효과 올해 관광객 150만명 넘었다

목표 300만 유치 가능성도

순창군이 가치를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펼치면서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군은 올해 안으로 목표치인 300만명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27일 “지난 20일 기준 지난해보다 12%가 늘어난 151만여명의 관광객이 순창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관광지를 단장하고 코레일과 협약을 통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 결과다.

실제로 지난 23일에는 다음달 11일

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부산발 남도해양관광열차(S-train)관계자들이 순창 관광상품 구상을 위해 순창을 방문했다.

남도해양관광열차 측은 이날 답사로 순천역에서 민속마을과 강천산, 재래시장을 연계한 상품을 구성, 시범적으로 오는 9월24일과 10월1일 2차례에 걸쳐 400여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순창에 올 예정이다. 군은 이 상품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군은 삼진강~영산강 자전거길을 강천산까지 연결시키는 명품트레킹 및 MTB코스 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서는데 등 관광자원도 정비하고



순창군이 다음달 10일까지를 며칠구 중점방제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벼 재배지에 대해 벼멸구 일제방제에 나서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한은, 中企 추석자금 100억 특별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100억원의 특별운전자금을 27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동산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지원 자금은 총원리 임금이나 원자

▲‘메이플-스톤’=양 자치체의 상징물인 단풍과 고인돌을 의미한다.

재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은 전북본부는 이 자금을 연리 1.0%로 금융기관에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1년, 대출금원은 업체당 최고 2억 5000만원이다. 신청은 9월17일까지로 각 금융기관에 하면 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고창해풍고추축제 31일 해리면서 개막

제17회 고창해풍고추축제가 오는 31일부터 2일간 고창군 해리면 해리중에서 열린다. 고창 해풍고추는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황토 땅에서 청정 서해안의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색이 붉고 깨끗하며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축제 개막일인 31일에는 해풍고추

군산해경, 흑도해상서 내일 함정 사격훈련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 부터 2시간 동안 군산시 옥도면 흑도 반경 9km 해상에서 경비함정 사격훈련을 한다며 선박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해상에서의 각종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의 일환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남원 지역경기 호전 공업용 건축물 허가면적 급증

남원시는 27일 “지난달 말까지 남원시 전체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4%가 증가한 1만 564㎡(479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착공면적은 27.4% 증가한 15만8481㎡(462건), 준공면적은 44.1% 늘어난 16만6248㎡(371건)이다. 특히 용도별 허가면적 중 주거용 건축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 4600㎡보다 34.0% 늘고, 공업용 건물은 역시 지난해 1828㎡보다 무려 1124% 늘었다. 착공면적 역시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증가율이 각각 30.4%와 264.1%로 지역경기가 지난해에 비해 호전되면서 건축 허가 면적 등도 늘어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정읍 내달 8일 전통시장 추석맞이 특별이벤트

정읍시는 27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추석맞이를 맞아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8일 일요일 오후 4시 썸고을시장 다목적문화광장에서 ‘추석맞이 고객감사 초대가수 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썸고을시장 내 ‘공공쿠폰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공동쿠폰 3장 이상을 모으면 ‘썸고을시장 상품권 3000원권’으로 교환해준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js@